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1993년 10월 8일 - 9일

한국어 기능동사 연구의 한 국면

홍재성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Un aspect de la recherche lexico-syntaxique des constructions à verbe support en coréen

HONG CHAI-SONG
Département d'Etudes Française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요 약>

한국어 어휘부 구성에 기능동사(경동사) 구분에 관한 언어정보의 수록은 필수적이다. 범용적 대규모 한국어 어휘자료 database 구축을 위한 기능동사 구분의 언어학적 분석·기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기능동사의 어휘적 한정 문제는, 어휘부 중심의 논의를 펼칠 때,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본 발표에서는 우선 확장된 기능동사 개념에 의거하여 기능동사 정보를 어휘부에 반드시 수록해야 할 논거를 제시하고, 기능동사의 어휘적 한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요점은 기능동사 구분이 서술명사와 기능동사의 결합에 의해 성립된다고 볼 때 이 두 범주의 어휘적 실현은 예측불가능한 제한적 결합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지므로, 일정한 서술명사와 결합 가능한 기능동사의 어휘적 형태를 어휘부에서 낱말이 한정하고 기재하여야 하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필수적인 연구작업은 크게 상호보완적인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한국어 서술명사의 총체를 목록화하고, 그 개별어휘 하나하나에 대해 가능한 기능동사 구문과, 구체적인 기능동사 어휘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어 동사의 총체를 목록화하여, 그 개별어휘 하나하나의 가능한 통사적 실현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기능동사 용법을 빠짐없이 가려내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목 차>

1. 예비적 지적
 1. 1. 기능동사의 개념
 1. 1. 1. 서술명사
 1. 1. 2. 단문성
 1. 2. 자연언어의 단문체계
 1. 2. 1. 일반자유구문
 1. 2. 2. 기능동사구문
 1. 2. 3. 속어구문
 1. 3. 방법론적 틀 : 어휘·문법
 1. 4. 연구목적과 의의
2. 기능동사구문의 문제
 2. 1. 통사적 속성
 2. 2. 의미
 2. 3. 기능동사의 유형
 2. 3. 1. 서술명사의 통사적 위치
 2. 3. 2. 문법적 변이형
 2. 3. 3. 문체적 변이형
 2. 4. 어휘적 속성
 2. 5. 기능동사 개념의 언어학적 의의와 활용
 2. 6. 기타 열린 문제
 2. 6. 1. 기능동사와 보조동사
 2. 6. 2. -이다 구문의 분석
 2. 6. 3. 기능동사와 속어동사
 2. 6. 4. 의사기능동사의 분석
3. 기능동사의 어휘적 한정
 3. 1. 서술명사의 어휘·통사적 기술
 3. 1. 1. 목록화
 3. 1. 2. 용법의 구분
 3. 1. 3. 자유명사/구속명사
 3. 1. 4. 가능한 기능동사 구문의 한정
 3. 2. 동사의 어휘·통사적 기술
 3. 2. 1. 목록화
 3. 2. 2. 유형화
 3. 2. 3. 개별동사의 용법 분석 : 일반자유동사/보조동사/기능동사/속어동사

<자 료>

- (1) 가. 철수는 영희에게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고 연락했다.
나. 철수는 영희에게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
다. 철수는 영희에게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는 연락을 했다.
- (2) 연락 (x, y, z)
제 1 논항 : x = 연락하는 사람
제 2 논항 : y = x가 연락하는 내용
제 3 논항 : z = x로부터 연락을 받는 사람
- (3) 가.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는 철수의 연락
나. 철수-(로부터 + E)-의 연락
다.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는 연락
- (4) 기영이를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영희에 대한 철수의 약속
- (5) 가. 안두희의 김구-(^ㄷ의 + E) 암살
나. 미떼랑의 서울-(^ㄷ의 + E) 방문
- (6) 가. 날이 밝았다.
나. 철수는 영희에게 속았다.
다. 영서는 기영이와 만났다.
라. 우리는 아침 일찍 광주로 향했다.
마. 기영이는 경기대학에 응시했다.
- (7) 가. 그는 입에 풀칠-(을 + 이나) 겨우 하는 처지이다.
나. 그의 가게는 계속 파리-(를 + 만) 날린다.
다. 모두들 그에게-(서 + E) 등을 돌렸다.
라. 그 정도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민다.
마. 이게 웬 떡이냐?
- (8) 가. 영희는 그 모임에서 준서에 대해-(서 + E) 비판을 했다.
나. 영희는 그 모임에서 준서에 대한 비판을 했다.
- (9) 가. *철수는 영희에게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는 기영이의 연락을 했다.
나. 철수는 영희에게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는 기영이의 연락을 전하지 않았다.
다. *철수는 영희에게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고 기영이의 연락을 전하지 않았다.
- (10) 영희에 대한 철수의 약속 ≡ 철수가 영희에게 (한 + *지킨 + *어긴 + *잊어버린 ...) 약속
- (11) 가. 영희는 철수-(에게서 + 로부터)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고 연락을 받았다.
나. 영희는 철수-(에게서 + 로부터)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다. 영희는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는 철수-(로부터 + E)-의 연락을 받았다.

- (12) 가. 철수-(에게서 + 로부터)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고 영희에게 연락이 (왔
다 + 갔다)
 나. 영희에게도 철수-(에게서 + 로부터)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 갔다)
 다.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는 철수-(로부터 + E)-의 연락이 영희에게도 (왔
다 + 갔다)
- (13) 가. 영희에게는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고 이미 연락이 되었다.
 나. 영희에게 토요일 오후에 만나자는 연락은 이미 되었다.
- (14) 가. (책임 + 의무)-를 (*하다 + 지다)
 나. 원한을 (*하다 + 품다)
 다. 영향을 (*하다 + 주다 + 미치다 + 끼치다)
 라. 결론을 (*하다 + 맺다 + 짓다 + 내리다)
 마. 마음을 (*하다 + 먹다)
 바. 도움을 (*하다 + 주다)
- (15) 가. 결정을 (하다 + 내리다)
 나. 계획을 (하다 + 세우다 + 짜다)
 다. 노력을 (하다 + 기울이다)
 마. 문안을 (하다 + 드리다 + 올리다)
 바. 불평을 (하다 + 늘어놓다 + 일삼다)
 사. 희망을 (하다 + 품다 + 갖다)
 아. 성공을 (하다 + 거두다)
 자. 사회를 (하다 + 보다)
 차. 잘못을 (하다 + 저지르다)
 카. 논의를 (하다 + 펴다 + 펼치다)
 타. 패배를 (하다 + 당하다)
 파. 연락을 (하다 + 보내다 + 보내오다)
- (16) 가. 절망을 하다 / 절망에 빠지다
 나. 실천을 하다 / 실천에 옮기다
- (17) 가. 결정하다 결론짓다
 계획하다 마음먹다
 노력하다 겁먹다
 나. *의무지다
 *영향주다
 *원한품다
- (18) 가. 믿음 믿다 믿음을 갖다
 셈 세다 셈을 하다
 도움 돕다 도움을 주다
 나. 만남 만나다 ?
 버림 버리다 ?
 놀림 놀리다 ?

(19)	하다	주다	받다	당하다	사다	보다	듣다
사람	+	+	+	-	-	-	-
검문	+	-	+	+	-	-	-
의심	+	-	+	-	+	-	-
신임	+	-	+	-	+	-	-
파해	-	+	+	+	-	+	-
영향	-	+	+	-	-	-	-
비난	+	-	+	+	+	-	+
압살	+	-	-	+	-	-	-

- (20) 가. 영희는 철수를 도와 주었다.
 나. 영희는 철수에게 도움을 주었다.
- (21) 가. 철수는 영서와 서로 친구이다.
 나. 기영이를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것이 영희에 대한 철수의 약속이었다.
- (22) 가. 영희는 동생-(에게 + 을) 야단을 쳤다.
 나. 영희 동생은 자기 누나-(에게서 + 로부터) 야단을 맞았다.
 다. *동생에 대한 영희의 야단
 라. *(영희 + 동생)-의 야단
- (23) 가. 영희는 담임 선생님을 마음속으로 사모를 했다.
 나. 사모의 정
 다. *담임 선생님에 대한 영희의 사모
 라. 담임 선생님에 대한 영희의 (사랑 + 중오 + 원한)
- (24) 가. 철수는 영희에게 약속을 못 지켰다.
 나. 철수는 영희에 대한 약속을 못 지켰다.
 다. 철수는 영희에 대한 (자기 + *준서)-의 약속을 못 지켰다.
- (25) 가. 명령을 (하다 + 수행하다)
 나. 계획을 (하다 + 실행하다)
 다. 충고를 (하다 + 따르다)
 라. 의무를 (지다 + 갖다 + 다하다)
- (26) 가. 전화를 (놓다 + 설치하다 + 없애다)
 나. 전화를 (하다 + 걸다 + 받다)
- (27) 가. 영희는 철수의 다리에 상처를 (입혔다 + *주었다)
 나. 영희는 철수의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혔다 + 주었다)
- (28) 가. (철수의 다리는 + 철수는 다리가 + 철수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 *받았다)
 나. (철수의 자존심은 + 철수는 자존심이 + 철수는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었다 + 받았다)
- (29) 사다
 가. 나는 영서-(에게서 + 로부터) 문세영 사전 초판을 샀다.
 나. 김선생은 책을 옮기기 위해 사람을 샀다.
 다. 나는 철수에게서 그의 직언하는 성격을 높이 사고 싶다.

- ㄹ. 정환이는 그 일로 친구들-(에게서 + 로부터 + 의) (호감 + 미움 + 의심 + 불평...)을 샀다.
- ㅁ. 너는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 ㅂ. 그에게는 사줄 만한 것이 별로 없다.